

인천 남동공단에 자리한 (주)서한메라민(대표이사 이균길 www.antamine.com)은 18년간 메라민시트 및 인쇄회로기판(PCB)지시보드 등을 전문생산 판매해 온 동업계 최초의 벤처기업으로서 전제품 ISO 9002인증과 UL마크를 획득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이다.

(주)서한메라민이 생산하는 메라민시트와 BACK UP BOARD는 화학합성수지와 필프를 원료로 하는 합성물질로 주로 사무용, 생활용, 주방용의 표면마감재, 고급바닥재, 고급인테리어소재, 철도차량내장재, 선박 및 버스내장재, 악기용마감재와 PCB인쇄회로기판 HOLE가공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이다.

특히 PCB인쇄회로기판 지지보드분야에서는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래 고객도 대덕전자 및 삼성전기 등 국내 우량기업들이다.

창업이래 화학합성 표면마감재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화학합성표면마감재 제조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인테리어산업 발전을 선도해와 지난해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중기청장으로부터 미추홀중소기업대상(우수벤처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구나 인테리어 마감재 제조기술분야의 기술력은 미국의 WILSONART와 독일의 DUROPAL사 등 선두업체들과 대등한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더욱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IMF이후 화학합성 표면마감재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투자를 계속하여 동업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국가가 공인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의 난연 1, 2급(불연재료, 준불연재료)과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거쳐 불에 타지 않는 인테리어용 건축내장 표면마감재(ANTAMINE(안타민))를 자체기

술에 의해 개발하여 과기부 전문위의 1, 2, 3차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KT마크를 금번에 획득하였다.

이 신소재는 그간 건축물의 내부에 난연이 되는 대체용 인테리어 소재가 없는 관계로 합판이나 MDF(PB)에 LPM이나 HPM, 무늬목도장마감 또는 인테리어용 PVC비닐이나 우레탄 폼 등으로 건축내부를 마감함으로써 지난해 화성의 씨랜드와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이 회사 이균길사장의 아이디어 착상에서 비롯되어 불이 나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개발하여 대형 인명피해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년간의 연구끝에 난연고분자수지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표출할 수 있는 표면지와 난연성기재에 수지를 함침시켜 고온고압에서 프레스하여 제조된 첨단소재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 등의 인테리어 표면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안타민 석고보드와 안타민 밤라이트(플랙스)보드 그리고 건축용시트 및 건축물의 바닥용으로 사용 가능한 안타민시트 4종류로서 화재발생시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50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고 표면은 멜라민의 우수한 강도 적성능(내열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충격성등)을 견뎌내며 반영구적이면서 시공도 입체형으로 간편하고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합법적이면서 혁신적인 신개념 신소재이다.

개정된 건축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그간 면적에 대하여 제한을 받아오던 공연장이나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주점영업점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난연2급 준불연재료급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소방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도 다중이용업, 안마사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적

탕,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고층건물 등에도 앞으로 난연2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인테리어용 건축내장재는 불에 강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난연재료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어 내수판매와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 미주나 독일 등 유럽등지의 수출전망은 아주 밝아 건축 및 인테리어업체관계자 및 바이어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균길사장은 말한다.

지난번 코엑스에서 공공시설 박람회에도 참가한 이후 건축 및 인테리어업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올 연말까지 주문량을 이미 확보하여 올 매출이 작년보다 40%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아 수출상품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특히 안타민은 신기술인증으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군수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간 (주)서한메라민은 중소기업청과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고도기술개발사업에 독창적인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5년연속 선정되는 등 여러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확장판의 제조방법, 인테리어 내장소재 제조방법 특허권과 난연성 인테리어용 석고보드, 밤라이트보드 실용신안권 등 1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국내외에 출원한 지식재산권만도 40여건에 이를 정도로 벤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매출액의 6%는 기술개발에 쓰고 있다. 신기술 KT인증을 계기로 올 10월에는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e-하우징페어박람회에 참가하여 영남지방에서 또한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인테리어계의 안타민 신화를 예고했다.

• 문의 032-815-1674(대)
기술연구소 배상호부장